

2025년 특허청 예산 7,058억원으로 확정

- 고품질 심사, 특허 빅데이터 활용, 지식재산 금융, 수출기업 분쟁대응 등 집중 지원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1억원(+0.6%) 증액된 7,058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

* 특허청 예산 : ('24) 7,017억원 → ('25) 7,058억원 (+41억원)

내년도 특허청 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,653억원으로 편성됐다.

* 주요사업비 : ('24) 3,647억원 → ('25) 3,653억원 (+6억원)

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는 ▲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*, ▲특허 빅데이터 활용 강화**, ▲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·성장 지원***, ▲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**** 등이 꼽혔다.

* AI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용 학습데이터 구축 : ('25) 28억원(신규)

** 국가 R&D 특허동향 심층분석 : ('25) 44억원(신규)

IP R&D 전략지원 : ('24) 368억원 → ('25) 387억원(+19억원)

특허 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: ('25) 32억원(신규)

*** IP 가치평가 지원 : ('24) 118억원 → ('25) 136억원(+18억원)

IP활용 창업·성장 지원 : ('24) 93억원 → ('25) 113억원(+20억원)

**** 수출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: ('25) 26억원(신규)

AI 기반 위조상품 단속 : ('25) 7억원(신규)

K-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: ('24) 68억원 → ('25) 75억원(+7억원)

특허청은 AI 기반의 특허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하여 신속하고,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, 국가 R&D 기획 등에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. 또한,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.

특허청은 연말까지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준비하여 내년 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정기현 (042-481-5039)
		담당자	사무관	박철 호 (042-481-5041)